



산사와 음악의 만남 '구름 관중'

봉화 청량사 음악회 '천년의 속삭임-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불교와 젊은 재미있고 따분하며, 할머니들이나 찾아가는 곳'이라는 일반의 편견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그저 마음만 활짝 열면 누구나 찾아와 그 속에 담긴 자연과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불교와 젊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산사음악회가 15일 경북 봉화 청량사 청량사에서 열렸다.

'천년의 속삭임,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을 주제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두 스님이 창건한 이래 올해로 개산 1338년을 맞는 청량사의 수행가풍을 잇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의 참 모습을 보게 하기에 충분한 자리였다.

특히 밤의 불교에서 '주는 불교'를 지향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종교적 색채를 최소화시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축제로 꾸며진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날 음악회에는 봉

화, 안동, 영주 등 인근 지역민과 불자들은 물론이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등 전국에서 5천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칠도청에서도 15일 무박 2일의 일정으로 경북 봉화 청량사 청량사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와 정동진을 연계한 관광열차를 운행할 정도로 이번 산사음악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봉화지역 단일행사로는 최대규모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지역사회와 불교가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이기도 했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앞으로도 이 지역 청량문화제의 사전 행사 형식으로 매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본 행사인 산사음악회 외에도 청량사는 산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전시회와 특별법회, 육법공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그야말로 한마당 문화잔치를 베풀었다.

음악회 시간이 다가오자 청량사를 에워싼 열두 암봉마다 은은한 조명이 밝혀졌다. 또한 절 아래로 이르는 길에는 연등을 내걸어 오가는 이들의 길을 밝히고, 청량사 전체는 무대가 되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한마당 잔치였다.

씨의 공연으로 산사음악회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사회자 진명스님은 그 열기에 극적효과를 더하려는 듯 이번 산사음악회를 마련한 주지 지현스님을 무대로 모셨다.

진명 스님이 물었다. "스님, 이번 음악회의 주제가 '천년의 속삭임,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인데요. 실제로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겠지요!" 지현스님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지현스님은 "이렇게 먼 곳까지 저희 산사음악회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 하늘에 가득한 별빛들을 한 아람씩 안고가시기 바랍니다"라며 청량사를 찾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소리꾼 장사익과 노름마치의 구성진 노래가락이 울려 퍼졌고, 오랜 시간동안 청중들을 기다리게 했던 가수 안치환씨가 산사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손에 손을 잡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함께 부르며, 청량사의 밤은 깊어갔다.



◀가수 안치환씨의 열창.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천년 고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함께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사이, 관객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어 들어갔다.

이은자 기자 eee@buddha.com



◀행사 당일인 15일 이른 아침부터 청량사 청량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청량사 개산 1338년 이래 최대인파 서울·부산 등 전국서 5천2백명 몰려 '청량산 열두암봉도 별빛과 함께 구경'

절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무대를 중심으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다. 법당 계단에, 화단까지 발디딤 없을 정도로 경내는 사람의 물결로 넘쳤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산 중턱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드디어 하우스님의 힘찬 법고 시연으로 산사음악회가 막을 올렸다. 청량산의 산신과 하늘의 별들, 유리보전의 악사여래부처님까지 문을 활짝 열고 앉아 공연을 지켜보았다.

테너 최조용씨(안동대 교수)가 부드러운 우리 가곡과 아리아의 선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 주었고, 국악인 성상희씨의 가야금 연주는 어찌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 가수 한영애

"주제가 있는 향연으로 매년 지역주민 초대"

음악회 연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아 이렇게 많은 별님들까지 저희 음악회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산사음악회를 준비한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사실, 저희는 천명만 봐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향연 음악회를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됩니다"라며 음악회의 성공 이전에 청량사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

이번 음악회는 '마음로 내려 온 스님'이라는 애칭까지 얻을 정도로 지역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지현스님의 권력의 한 결실이다. 스님은 최근 영주장애인복지관의 관장도 맡아, 하무도 활동이 없다.

현재 스님은 우리 향작 찬불가를 제작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의 총재이기도 한데, 이런 스님을 중심으로 풍경소리를 비롯해 청량사와 인연 맺고 청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

스님은 "오늘의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주제가 있는 산사음악회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라며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고장과 청량사를 널리 알리고, 인근 지역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알찬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철저한 준비-흥겨운 진행"

부산서 온 이경태씨 가족의 소감

"불자이신 어머니께서 가고 싶다고 하셔서 주말을 이용해 전 가족이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찾았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철수를 앞둔 노모와 10개월 된 작은 딸, 3살 된 큰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청량사를 찾은 이경태씨. 자신은 불자가 아니라고 밝힌 이씨는 어머니 덕분에 모처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

"여기 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곳 청량사의 산세나 분위기, 철저한 준비와 깔끔한 진행, 멋있는 음악, 모두 감동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올 생각입니다."

이은자 기자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숯



서기 802년, 신라의 순웅 대사에 의해 창건된 해인사에는 숯에 관한 일화가 전해진다. 당나라에서 고향 곁에 큰 깨달음을 얻은 대사가 고향인 서라벌로 돌아오던 때의 일이다. 가야산 산중에서 서공(西公)이 비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따라가던 대사의 눈앞에 아름다운 계곡이 펼쳐졌다. 날이 밝은 뒤, 그곳 지명을 둘러보니 현하에 돌도 없는 길이었다.

순웅대사는 그곳에서 불사를 위해 숯을 만들기로 했다.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숯은 산터미처럼 쌓였다. 내일이면 마을 장정들을 불러 숯을 마을로 옮기지만 하던 그간의 고생도 빛을 보는 것이었는데, 아홉째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덮이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그 많은 숯기마와 숯덩이를 모조리 흙 속에 묻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웅 대사의 꿈에 문

중풍·당뇨·어린이 경기에 효능

수보살이 나타나 "이곳은 내가 400년 후에 와서 머물 곳이니, 그때 그대의 숯을 고맙게 쓰겠노라. 그때는 빨리 서라벌로 가서 숯으로 공주의 병을 고치라" 이르셨다. 당시 신라 예장왕의 공주는 위계양이 심해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 대사의 숯가루 처방 덕분에 공주의 병은 호전되었다. 그 후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은 해인사의 창건을 발원한 순웅 대사를 크게 도왔다고 전해진다.

본래 식용 숯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음식 또는 음식의 첨가제로 이용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뽕에 숯을 넣어 밥을 지

었다는 기록이 있고, 돌림병이 들 때면 으레 숯가루를 탄 물을 마셔 저항력을 키웠다. 서양은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간질, 현기증, 빈혈, 탄저병 등의 치료에 이용했다. 예로부터 숯은 살균, 정화의 효능이 뛰어나 우리의 징유(醬油) 음식을 만드는데 널리 이용되었고, 식용 숯은 대장염이나 위궤양, 속변 제거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차콜(Charcoal)'이라 불리는 소나무 숯가루를 주로 사용하는데, 식용 숯은 선식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로 이용되었다. ■ 약선식연구가 <산세>가면 특별한식단이있다 >모색의저자

효능과 이용법

- ① 한방에선 '죽역'이라 불리며 중풍, 당뇨, 어린이 경기에 사용.
- ② 진통, 해열작용과 공해물질 및 진류농약 성분의 제거, 위염, 간염의 예방 효과.
- ③ 위암, 췌장암에는 참숯에 활포아궁이 바삭을 굵어 물에 타서 먹으면 효험이 있다.
- ④ 수돗물 1리터당 숯 20~30g짜리 1~2토막을 넣으면 정화수가 된다.

